

부티크 익스클루시브로 선보이는 블루 컬러의 빌레레 울트라 플레이트(Villeret Ultraplate)

블랑팡(Blancpain)에 있어 탁월함은 모든 시계를 고안하고, 기술력, 혁신, 그리고 미적 요소를 결합하는 전 과정의 가장 중심에 있다. 새로운 빌레레 울트라 플레이트(Villeret Ultraplate)가 바로 이를 증명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. 블루 다이얼을 갖춘 이 플래티넘 소재의 타임피스인 시, 분만을 나타내는 가장 클래식한 시계의 정수를 보여준다. 88 피스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여지며, 전 세계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.

1980년대초부터 우아함과 섬세함이 빌레레 모델의 특징을 대변해왔다.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(Villeret Extra-plate) 워치도 예외는 아니다. 컬렉션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와 개성을 고수하면서 더욱 모던한 얼굴을 지녔다. 빌레레 스타일은 섬세한 라운드 형태의 더블-스텝 베젤, 빛나는 다이얼, 컷-아웃 세이지 잎 모양으로 정교하게 완성한 스타일리시한 바늘, 골드 소재의 애플리케 로마 숫자 아워 마커, 그리고 매력적인 슬림 케이스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.

블랑팡은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가독성과 정확성은 더욱 높이면서 이전보다 더욱 얇은 케이스의 모델을 선보였다. 유명한 1150 칼리버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핸드 와인딩 11A4B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짝을 이룬 배럴 두 개와 고성능 헤어 스프링을 탑재한 덕분에 4일 파워리저브가 가능하다. 이러한 구조 덕분에 시와 분 모두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일관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. 특히 사용자가 시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블랑팡은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에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를 탑재했다. 미니멀한 다이얼의 레이아웃을 해치지 않기 위해 뒤편에 인그레이빙했다. 사파이어 케이스백이 보호하고 있는 무브먼트는 시계 다이얼의 순수함을 반영해 매우 섬세하게 데커레이션했다.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브리지는 전통적인 코트 드 제네브(côtes de Genève) 모티브를 새겼고, 가장자리를 베벨링 처리했다. 오로지 시계를 소유한 이만이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하이엔드 피니싱은 브랜드의 철학, 그리고 고귀한 타임피스에 대한 브랜드의 비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.

플래티넘 케이스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빌레레 엑스트라-플레이트는 지름 40mm, 두께 7.4mm로 선보인다. 블루 다이얼과 블루 악어가죽 스트랩, 그리고 핀버클을 매치했다. 88 피스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여지며, 전 세계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.